

지역 매아리

부안해양경찰서

상반기 국가위기관리 실태 점검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지난 11일부터 3일 간 국가위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상반기 위기관리 실태 자체 점검을 했었다.

이번 점검은 해양테러와 지진·풍수해 재난, 대규모 해양오염 등 국가위기관리에 대비한 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점검반을 구성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출장소를 순회하며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교육 여부, 해양사고 다발해역 분석 및 관리, 유관 기관 업무 협조 현황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질환 주의 '당부'

전북도 내에서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보건소가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소는 각 읍면동과 보건지(진료)에 관련 홍보 자료를 배부, 주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한 각종 교육과 연계해 이날 현재까지 16회(2,100명)에 걸친 주민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보건소는 진드기 기피제 21,800여개도 9,750농가와 500개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이하 SFTS)을 매개하는 진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다. 이 기간에는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염되면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야외작업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야외활동 시 긴팔·긴바지를 착용하고, 풀밭위에 의복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후 목욕하기, 입었던 옷 세탁하기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입었던 옷을 세탁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문화제 준비 '박차'

정읍시, 이달 11일부터 거리퍼레이드 참가 신청 접수 10월 19일부터 정읍사공원·정읍천변 일원서 열어

정읍시가 제29회 정읍사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문화제는 10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정읍사공원 및 정읍천변 일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하여 시와 (사)정읍사문화제 제정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문화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공식행사로 채수연의와 정읍사 여인제가 진행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부도상도 시상한다.



정읍시가 제29회 정읍사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거리퍼레이드와 관련, 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 그 외 사랑의 소원을 달기, 소망 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시는 이러한 공식 행사를 통해 정읍사문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공연행사는 19일 개막식 당일 축하공연과 20일 진행되는 제29회 정읍사 가요제, 21일 제2회 메이플스타 오디션 페스티벌(본선)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 KBS 전국노래자랑 정읍시편도 섭외 중이다.

이중 특히 지난해 엔터테이너를 발

굴을 위한 지자체 최초 오디션 프로 그램으로 시도된 '정읍메이플스타 오디션 페스티벌'이 주목받고 있다.

2회 차를 맞아 전국 순회 예선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디션과 관련 시는 지난 5월에는 정읍메이플스타 오디션 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가졌다.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었던 '정읍사 러브 판타지쇼'도 준비된다.

정읍사 공원 내에는 백제가오 정읍사의 색깔에 맞게, 사랑을 테마로 하여 LED 조명으로 장식하고 정읍천변 초산교에서 정동교 구간에는 LED 조명 및 물길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는 여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상징등을 제작하여 천변 둔치도 장식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간식먹거리 부스와 체험 부스도 운영,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와 정읍사문화제 제정위원회(이사장 조태수)는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백제가오 정읍사 고장에 걸맞은 풍성한 문화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거리퍼레이드와 관련, 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가팀에게는 일정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4팀에게 총 1,9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거리퍼레이드 참가단체 전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www.jeonge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투어패스로 패키지 정읍여행 즐기세요"

시티투어 탑승료·내장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등

저렴하고 알차게 패키지 정읍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가 주목받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전라북도 내 전역의 문화유산과 자연, 관광, 숙박, 공연 등을 무료 또는 특별할인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다.

전북도가 도 내 여러 관광지를 한 곳 더, 한 번 더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전북관광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것으로, 토달 관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초순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와 내장사 문화재관람은 전북투어패스 자유이

용시설로, 내장사 케이블카는 특별 할인가맹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투어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시티투어버스의 경우 기존에 지불하던 탑승료(5,000원)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내장사도 문화재 관람료 3,000원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왕복 8,000원인 내장사 케이블카 이용료는 1,000원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싸고 알차게 정읍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질의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할인가맹

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할인가맹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전북투어패스 한 장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더욱 다양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에서는 정읍역 앞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비롯 내장사관광안내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전북투어패스를 판매하고 있다.

자유이용시설 5개소(칠보물레마유원지, 솔티도예공방, 우리누리문화생활관, 내장사, 시티투어), 특별할인가맹점 59개소, 공영주차장 3개소(연지, 시기, 수성)가 운영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고장 만들어요~

고창군,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 추진

고창군이 고농도의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맑은 하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해 차량 운행제한과 노후경유차 중점관리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건물신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레미콘공장 등)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폐비닐, 폐목재, 생활쓰레기, 노천소각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과 대기배출시설 관리강화로 자동차 정비공장, 도정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도로 진공 청소차량을 수시로 이용해 휴먼지 발생원인인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한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민감계층 등에 마스크 지원을 비롯해 내년에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매년 저감장치 설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확대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도로 물청소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창군 홈페이지, 팸플릿, SNS(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한 국민 행동요령 홍보로 주의보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군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면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군 환경위생과 봉관종 과장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종합대책을 보완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접수

부안군, 7월 2일까지

부안군은 2018년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며 추가 모집 사업추진 중)이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78년 1월 31일~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이며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안군은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일까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달 13일까지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소방서, 입암중학교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지난 12일 오후 입암중학교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내용은 ▲ 소방공무원이 업무범위와 소방직비 알기 ▲ 자격증, 관련학과 안내로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체력검정 기구를 이용한 체력테스트 ▲ 특수방화복 착용 등 소방차 방수체험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무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청소년 안전의식 향상과 진로 설계 지원 및 안전교육 병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 관내 중학교 19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통해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myeongju produc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ext includes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and '부안강산명주'.